

스포츠·연예 스타들 '결혼의 계절'



〈최희섭·김유미 커플〉

12월 휴식기를 맞아 지역 스포츠 선수들의 결혼식이 이어진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올 시즌 6명의 선수가 '풀질남' 대열에 합류한다.

지난달 31일 투수 유동훈(33)이 가장 먼저 스트리트를 끊은 가운데 '빅초이' 최희섭

최희섭·김태균·이범호·김영광 등 12월 '풀질남' 대열 합류

(31)이 미스코리아 출신 김유미(27)씨와 내달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올해 이례적으로 12월 마무리 캠프가 진행되면서 동료들 없이 결혼을 치르게 된 최희섭은 식을 올린 뒤 8일 일본으로 건너가 팀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21일 일본 미야자키에 캠프를 끝인 KIA는 내달 24일까지 마무리 캠프를 갖는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는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백년 약을 맺는다.

내야수 박기남(29)이 26일 신양파크호

텔에서 식을 올리고, 외야수 최훈락(28)도 같은 날 고향인 부천에서 결혼을 한다. 이 외에도 투수 김옹비(25)와 양동일(25)이 각각 11일과 18일 웨딩마치를 올린다. KIA 전력분석팀의 박희웅 사원도 11일 '호랑이 군단'의 결혼 러쉬에 동참한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의 공격수 김명중(25)은 내달 12일 예비신부 노아랑(24)씨와의 결혼을 발표했다. 2008·2009시즌 광주 상무에서 주전 공격수로 맹활약하며 무명 탈출에 성공한 김명중은 전남에 새동

지를 틀 올해 결혼에 끝이 있으며 2010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내달 4일 한화 한대화 감독이 장남을 결혼시키고 같은 날 저녁에는 '세이브 왕' 네센 손승학(28)이 식을 올린다.

11일에는 올 시즌 일본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김태균(28·지바 롯데)이 전

로 캐나다 KBS N 스포츠 아나운서 김석우(27)씨와의 결혼을 발표했다. 2008·2009시즌 광양출신 골키퍼 김영광(27·울산 현대)과 삼성 투수 배영수는 17일과 18일 풀질남이 된다. /김여울기자 wool@

가수 조성모 27일 화촉



〈구민지·조성모 커플〉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며 정상급 가수로 활동했다.

예비 신부인 구민지는 탤런트로 한때 광고 모델로 활동했으나 연기 활동을 접고 의류 디자인을 공부해왔다. 결혼 후에는 내조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욱·임상우 교수 외과 우수 구연상



화순전남대
병원 대장항문
외과 허정욱
임상우 교수가
최근 서울 코
엑스에서 열린
제 62차 외과
학회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허정욱 교수는 대장항문외과분야에서 '조기대
장암에서 일파선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
한 분석'으로, 임상우 교수는 임상종양분야에서
'한국인 위암 및 대장암 조직에서 사립체 유전자
4977bp 대결손의 빈도 및 정량검사 결과'로 우수
연제발표로 선정됐다. /채희종기자 chae@

아리랑TV, 정관체 염색장 소개



아리랑TV의 데일리 매거진
쇼 '아리랑 투데이'는 24일 오전
7시 전연 염색의 명맥을 있는
나주 정관체(51) 염색장을 소
개한다. 전연 염색의 꽃이라 불
리는 쪽 염색 장인인 정관체 염
색장은 2001년 42세의 나이로
최연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고향에 전재산 기부 할머니 송덕비 건립



진도 조희균씨

간단을 극복하려고 서
울로 올라가 악착같이 모
은 전 재산을 고향 마을에
기부한 팔순 할머니를 기
리는 송덕비 제막식이 열
린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55년 만에 고향인 진도군
의신면 돈지마을로 귀향
한 조희균(80) 할머니가

25세에 부모를 잃고 단신
으로 서울로 상경, 독신으로 자수성가해 피땀 흘려
모은 2만6400m²의 논과 밭을 돈지마을에 아무 조
건 없이 기부했다.

마을 주민들은 조씨의 고향 사
랑과 깊은 뜻에 감사의 표시로 송덕비를 세우고

24일 제막식과 함께 팔순잔치를 벌일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북한 어린이 돋는 일, 통일의 시금석”

창립 10주년 광주·전남우리민족돕기운동 김영삼 사무국장

“북한 어린이를 돋는 일은 남북 통일의 시금석
이 될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를 떠나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해 광주시민들의 작은 정성을 보태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의 김영삼(40) 사무국장은 북한어린이 지원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광주·전남 우리민족'은 학경복도 회령시의 남문유치원과 탄광기계유치원, 타이소 등 3군데의 북한 어린이 889명에게 한기식사가 가능한 빵과 두유가루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0 세계발전지표'에는 5세 이하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영양 실조일 만큼 어린이들이 식량난의 최대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의 한달 지원금은 대략 400만원 가량. 한 아이 당 5000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남한에서 한기식사가 북한 어린이에게는 30끼의 식사가 되는 것이다. 현재 지원금은 광주시교

육청과 함께 하고 있는 '현 교과서 모으기 운동'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김 국장은 "회령시의 유치원·타이소 17군데에
다니는 아이들이 4231명에 달하지만 지원금이
부족해 3군데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
한의 회사는 북한의 유치원과 연계해 급식을 지
원하는 '1사 1유치원 돋기'가 절실히 시급"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국장은 북한 어린이 지원이
북한 사람들의 마음 속 벽을 허무는 효과가 있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돕기가 출범한 지 10년
이 지난 지금 북한 아이들은 한국의 지원에 고마
워하고, 한국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정도가 됐
다는 것.

그는 "남북 어린이 모두가 같은 민족이라는 사
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며 "남북 통일 없이 선
진대국이 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치권은 물론
민간에서의 통일에 대한 노력이 질적으로 양적
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지난 18일 수능을 치른 고3 학



생들에게도 참고서를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기부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분식집 딸은 슈퍼스타”

'miss A' 수지 부모 운영 우산동 분식집 인기

“분식집 딸은 슈퍼스타.”
지난 7월 데뷔하자마자 가요계에
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miss A'의
막내 수지(16·배수지)양이 광
주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수지양
의 부모가 운영중인 분식집까지 인기
를 끌고 있다.

현재 수지양의 부모는 광주시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앞에서 M분식집
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22일 M분식집은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수지양의 부모 배원영

(48)·정현숙(41) 부부는 부지런히 이
집의 주력메뉴인 상추튀김을 튀기는

중이었다.
이미 이곳이 수지양의 집이라고 소
문을 단 듯 분식집의 한쪽 벽면은 벽
이 꽉 찰 정도로 팬들이 남긴 메시지
와 관련 기사들이 장식하고 있었다.
수지의 팬들에겐 이 집이 일종의 '성
지순례' 코스에 해당한다.

연예인의 집이라 해서 매출이 크게
늘진 않았지만 알고 찾아오는 손님이
는데다 호기심과 확인차원으로 분식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배씨는
“딸이 아주 대견스럽다”며 “한상
밝았던 아이가 TV에서 똑같이 웃고
있으니 아직은 신기하기도 하고 실감

이 안난다”고 말했다.
문화중학교를 거쳐 전남여고를 다
니던 수지양은 지난해 연예인 기획사
에 입교돼 1년간의 연습생 시간을 보
내고 지난 여름 데뷔했다.

첫 곡이 크게 히트하면서 수지양의
주가도 올라갔고 내년 모 공중파에서

방영될 청춘드라마에 주연으로 낙점
돼 이미 활동까지 하고 있다.
어머니 정씨는 “중학생 시절에는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도 종종 했
다”며 “연예인이 됐지만 집에 오면
부모 일을 항상 돋는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모집

모집